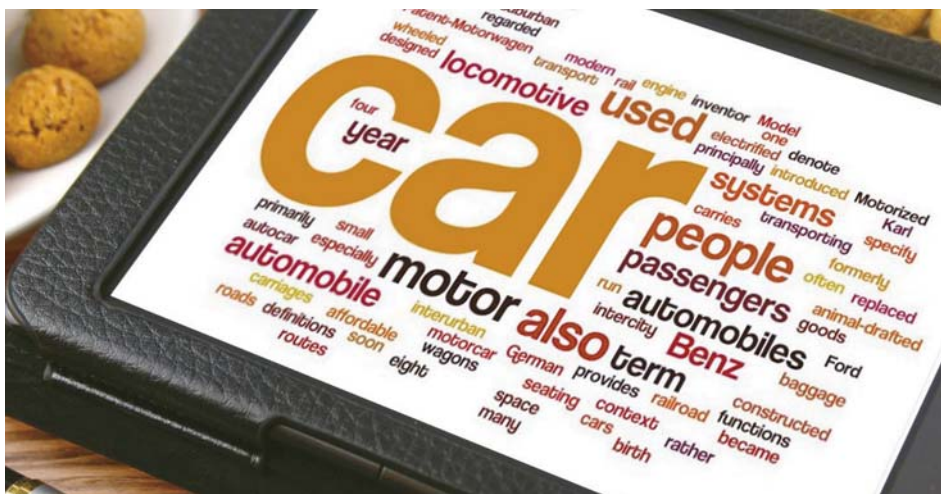
미국에서 자동차 구매를 고려한다면?



미국 중고차 매매 사이트 BEST 4

미국 서부에 거주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자동차다. 다운타운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보통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학생들이 새 차를 사려면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 차를 사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중고차다. 미국 내 중고차 구매에 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들을 알아보자.

1. CARMAX

미국 전역에 있는 중고차 판매사이트다. 오프라인 매장이 미국 175개 이상의 지역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원하는 차종과 가격, 옵션 등을 인터넷에서 확인한 후, 직접 매장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방문 시, 원하는 차 모델이 매장에 없는 경우 사이트를 통해 차량 트랜스퍼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CARMAX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면 개인 거래보다 가격대가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구매 후 자동차 서비스(5-Day Money-Back Guarantee, 30-Day Limited Warranty)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2. Craigslist

미국 최대규모의 물품 판매 및 거래 사이트이다. 중고차 외에도 Community job lists, Housing rent, Service ads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Craigslist는 전국적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 해당하는 웹페이지로 접속해야 한다. For sale 부문 안에 Cars+Trucks 판매 페이지가 속해 있고, 클릭 시에는 개인 판매와 딜러샵 판매로 나누어 검색할 수 있다.

Craigslist의 장점은 비교적 싼 가격의 중고차 매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거래 중고차들은 중간 상인이 없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중고차 사이트들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중고차 매물에 관한 정보의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차량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3. 자동차 딜러샵 홈페이지

Toyota, Honda, Hyundai, BMW 등 자동차 회사들은 자사 중고차 딜러샵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Approved Used Cars라고 해서 자동차 브랜드에서 직접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이트이다. 올라오는 매물들은 보통 리스가 만료되어 회사로 리턴 된 차량이 많은데 리스차량들은 1년에 정해진 마일을 초과해서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운행 마일리지가 높지 않아 오래된 연식의 중고차들도 차 상태가 괜찮다.

또한, 자차 브랜드에서 관리하는 중고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점검 서비스가 완료되어 사이트에 업데이트되고, 자세한 매물 상태를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개인 딜러샵들에 비해 중고차 가격대가 높다.

4. 대학 중고거래 사이트

대부분 대학교에는 학생들에 의해 혹은 학교 자체에서 중고거래사이트가 운영된다. Biola University의 경우는 Free & For Sale 페이스북 페이지와 apps.biola.edu/classifieds 웹사이트를 통해 중고거래가 이루어진다. Biola 대학생들과 스텝, 교수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외부 중고거래 사이트보다 신뢰도가 높다.

특히,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 거래 시, 믿을 만한 판매자인지 혹은 중고차 상태가 나쁘지 않은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학교 사이트를 통한 거래는 비교적 믿을만하다. 또한, 판매자가 같은 학교 멤버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직접 점검하거나 시험주행을 하러 가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Biola University
김혜원 대학생 기자

네트워킹 · 취업 · 스포츠 동아리 등 다양해

UCLA에서 나에게 맞는 한인 동아리는?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에는 많은 한인 교포들뿐만 아니라 한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많은 한인 학생들이 재학 중인 만큼 다양한 한인 동아리들이 존재한다. 학교생활에서 동아리 활동이 필수는 아니지만, 특히 집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가 돼 줄 친구를 만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많은 한인 동아리에서 신입생, 편입생을 위한 행사를 많이 주최한다. 신입생 환영회와 General Meeting이 대표적인 예다. 첫 학기 시작 전 여름, 한국에서도 여러 한인 동아리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주최한다.

신입생 환영회를 통해서 이미 재학 중인 UCLA 학생들을 만나면서 입학 전 학교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 학교생활 팁도 알 수 있다.

본인 역시 입학 전 새로운 환경과 달라진 학교 시스템에 걱정과 불안함이 많았지만, 신입생 환영회에 참여함으로써 재학생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학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었다.

여름에 한국에 없고 미국에 있다면? 미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UCLA 총 한인 학생회 UKV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신입생 환영회를 주최하니 걱정할 필요 없다.

또한, 첫 학기가 시작한 후 초반에 대부분의 동아리에서 General Meeting을 주최한다.

General Meeting에서는 각 동아리의 목적, 특징, 분위기 등을 알아볼 수 있다. General Meeting을 최대한 많이 참여하면서 자신과 가장 맞는 동아리가 무엇인지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UCLA에는 어떤 한인동아리들이 있을까?

UCLA 총 한인 학생회 UKV (United Korean Voice), 기업 간의 네트워킹 및 취업준비 동아리 KOJOBS (Korean job Search), 비즈니스 동아리 KUBS (Korean Undergraduate Business Society), 세계 한인 학생 연합회 GLA (Global Leaders Association) 스포츠 동아리 KAN (Korean Athletic Network), 한인 2세 동아리 KASA (Korean American Student Association), 이공계 동아리 KSEA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음악동아리 Ready made, 풍물 동아리 Hanoolim 등 다양한 한인 동아리가 있다.

한인 동아리 중에 자신의 전공과목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며 스펙을 쌓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동아리만큼은 전공 쪽에 벗어나서 하고 싶은 취미나 평소 관심 갔던 분야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많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동아리를 하나만 들어야 하는 제한은 없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게 된다면 시간 분배를 잘해야 한다.

대학 생활의 꽃은 동아리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게 동아리 활동이란 대학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교내 한인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고 네트워킹을 하는 총 한인 학생회 UKV에 들어간 것이 나의 대학 생활의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한인 학생들을 위한 많은 이벤트를 기획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이벤트에 참여해준 재학생들도 많이 알아가며 추억도 쌓아가면서 현재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

주변에 동아리 활동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 번쯤 꼭 해보라고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 대학 생활에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유정은 대학생 기자